



금융위원회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6.(화) 석간	배포 일시	2022. 12. 5.(월) 16:0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	책임자	단 장 손성은 (02-2100-2601)
		담당자	사무관 장원석 (02-2100-2606)

상장사 임·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「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(K-ITAS)」 활용도 제고를 지원합니다.

※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·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·심리기관 협의회 개최

< 조사·심리기관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>

◇ 상장사 임·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「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*(K-ITAS)」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.

*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

○ 현재 상장사 임·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습니다.

-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「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(K-ITAS)」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·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.

→ K-ITAS를 활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·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,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.

◇ 한편, 금융위·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「공동조사 제도*」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·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·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('22.3월 첫 공동조사 실시)

◇ 동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·조사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.

○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(11월 신규착수 14건), 금융위·금감원 조사 160건(11월 신규착수 10건)이 진행중입니다.

○ 11월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,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, 5명, 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.

I 회의 개요

- 12.5일 금융위원회(이하 금융위)·금융감독원(이하 금감원)·한국거래소·검찰(남부지검)은 「불공정거래 조사·심리기관 협의회(이하 조심협)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< 조심협 개요 >

- ◇ 심리(거래소), 조사(금융위·금감원), 수사(검찰)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·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, 협력과제를 발굴·추진해 나가는 협의체(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, 필요시 수시 개최)

II 조심협 주요 논의 내용

1 상장사 임·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방안 (K-ITAS 활용도 제고)

< 추진배경 >

-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제재 뿐만 아니라,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- 특히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*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* 거래소 →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: (17) 51.1% → (18) 69.5% → (19) 74.8% → (20) 62.6% → (21) 69.0%

- ⇒ 상장사 임·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< 주요내용 >

- **(현행)** 한국상장회사협의회(이하 상장협)·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·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*을 두고 있습니다.

* 상장협 「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」, 코스닥협회 「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」

- 이에 따라 유가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소속 협회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임·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와 관련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.

□ **(문제점)**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.

□ **(개선)** 금번 조심협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「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* (K-ITAS, KRX-Insider Trading Alarm Service)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12월중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는,

- 한국거래소의 「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(K-ITAS)」를 통해 임·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,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

<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(K-ITAS) 개요(상세 참고 p.6) >

◇ **(개요)**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 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('18.7월 서비스 개시)

→ 상장사는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예방,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

◇ **(이용방법)** 상장사가 임·직원 등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신청

※ 거래소 감시통합포털(<http://sims.krx.co.kr>) 또는 전화 신청(02-3774-4375)

◇ **(이용현황)** 전체 상장사의 12.5% 이용 (307개사/2,451개사, '22.11월말 기준)

< 기대효과 >

□ 향후 상장사가 협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면,

○ **(상장사 임직원)**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,

-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**(상장사)** K-ITAS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,

- 단기매매차익 반환*, 임원 소유상황 보고**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 상장사 임·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6개월 이내 매수(매도) 후 매도(매수)한 경우 차익 반환(자본시장법 §172)

** 상장사 임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증선위·거래소에 보고(자본시장법 §173)

< 향후계획 >

- 금융위·거래소·상장협·코스닥 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,
 -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(K-ITAS)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안내자료 및 Q&A 배포, 신규상장일 임직원·공시책임자 대상으로 가입 독려 등

2

금융위·금감원 공동조사 적극 추진

- 조심협에서는 금년 3월 ○○○○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실시한 첫 공동조사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,
 -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조사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·금감원간 적극 협력하는 한편,
 -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< 공동조사 개요 >

- ◇ (개요)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·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·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
- ◇ (실시 사례) '22.3월, 금융위·금감원은 ○○○○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금감원의 공동조사 요청으로 첫 공동조사에 착수
 - 약 4개월간의 금융위·금감원 공동조사 내용을 증선위원장 긴급조치*(Fast-Track)로 '22.7월 검찰에 통보
 - * 긴급·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

□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·금감원 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.

※ 일반적으로 ‘시장감시·심리(거래소) → 조사(금융위·금감원) → 고발·통보(증선위) → 수사·기소(검찰) → 형사재판(법원)’ 순으로 진행

1. 시장감시 현황

구 분		‘22.10월	‘22.11월
시장경보	투자주의	172건	147건
	투자경고	11건	13건
	투자위험	3건	1건
	소 계	186건	161건
예방조치 (서면·유선경고, 수탁거부 등)		398건	417건
테마주 집중 모니터링		13개 테마	13개 테마

2. 심리 현황

	‘22.10월	‘22.11월
신규착수	16건	14건
종결	15건	15건
진행중	-	15건

3. 조사·조치 현황

		‘22.10월	‘22.11월
조 사	진행중	-	160건
	신규 착수	14건	10건
조 치	종결	10건	12건
	고발	-	1명
	통보	9명, 1개사	8명, 10개사
	과징금	1명, 2개사	5명, 7개사
	과태료·주의·경고	-	16개사
	합계	10명, 3개사	14명, 33개사

1. 개요 (KRX-Insider Trading Alarm Service)

- **(개요)**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주식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매매 내역을 회사에 통보해 주는 서비스 ('18.7월 개시)
- **(활용)** 상장사는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예방,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

2. 서비스 운영 내용

- **(등록대상)** 상장법인 임·직원, 계열사 임원, 주요주주, 5% 이상 보유자, 최대주주, 및 특수관계인, 공시책임자·담당자, 공시대리인 등
- **(신청 대상 종목)** 당해 법인 및 계열사의 상장주식
- **(운영방법)**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
 -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하고, 해당법인은 매매내역(성명, 종목명, 거래대금 등) 조회 후 유의사항 안내 등 조치



<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(K-ITAS) 신청 방법 안내 >

- ▶ 인터넷 :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(<http://sims.krx.co.kr>)
- ▶ 전 화 : 02-3774-4375

3. 기대효과

-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¹⁾, 단기매매차익거래²⁾ 및 임원 소유 상황 보고³⁾ 위반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

- 1) (예시) 임직원의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
- 2) (예시) 매수한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예방
- 3) (예시)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·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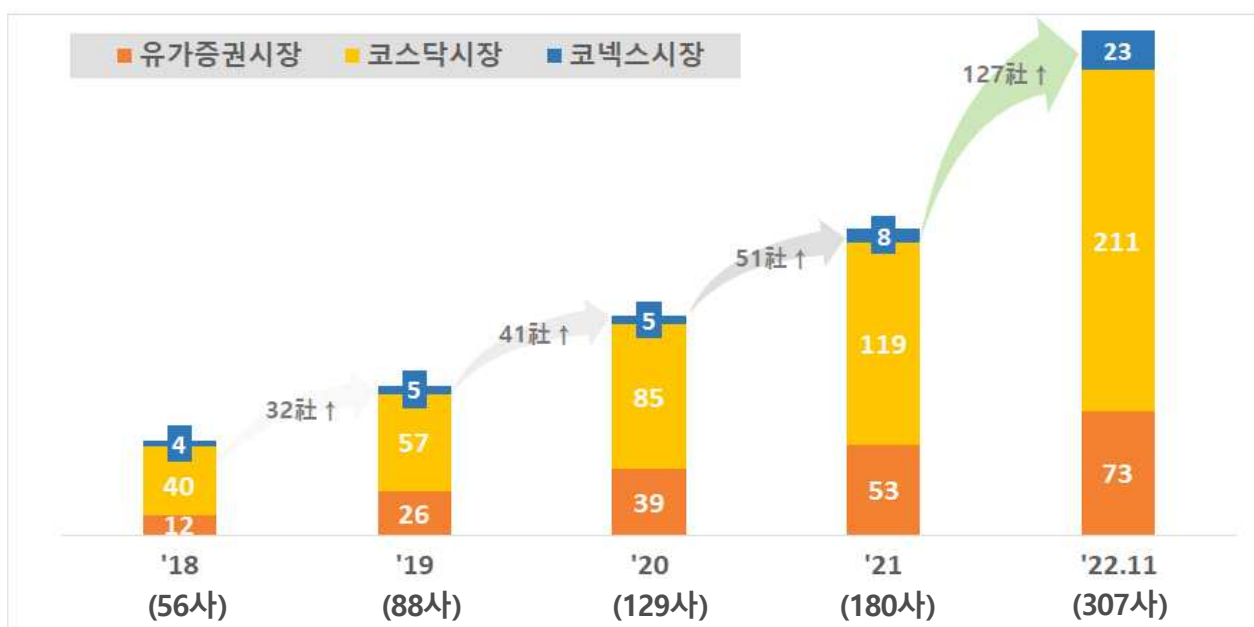
4. 가입현황

- '22.11월 기준, 총 307사 가입, 전체 가입률*은 약 12.5%* (307/2,451사)

* 전체 상장사 (주권 및 외국주권 상장 기준, 스펙은 제외) 대비 K-ITAS 가입사 비율

-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 등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매년 상승

< K-ITAS 가입현황 >



- K-ITAS에 가입한 시가총액 상위 상장법인은 카카오, 포스코케미칼, 카카오뱅크, 크래프톤, HMM 등의 순임 (기업명 공개 동의 기업 限)

< K-ITAS 가입법인 중 시가총액 상위 10사 >

순위	회사명 (시장)	순위	회사명 (시장)
1	카카오 (유가)	6	기업은행 (유가)
2	포스코케미칼 (유가)	7	엘앤에프 (코스닥)
3	카카오뱅크 (유가)	8	카카오페이 (유가)
4	크래프톤 (유가)	9	넷마블 (유가)
5	HMM (유가)	10	한화에어로스페이스 (유가)

* K-ITAS 가입사 중 '22.11.30 기준 시가총액순 (기업명 공개 동의 기업 限)



담당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	책임자	단장	손성은	(02-2100-2601)
		담당자	사무관	장원석	(02-2100-2606)
<공동>	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	책임자	국장	고영집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장	박형근	(02-3145-5582)
<공동>	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	책임자	부장	이재훈	(02-3774-9020)
		담당자	팀장	김진	(02-3774-4370)